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산림청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소중한 나무 !
나무는 해충이나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나무병원은?



"나무를 건강하게 해요"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으로 나무의 건강을 지켜 우리 집과 함께 사는 자연을 보호해줘요.



"나와 가족을 지켜줘요"

나무의사 처방 없이 하는 방제는 토양, 나무 식재 상황 등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져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은 내 가족에게 위험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해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에요"

나와 가족의 삶을 맡긴 집을 품고 있는 자연 숲. 나무의 위험은 가족의 위험이 돼요. 나무의사 전문 진료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 건강해진 나무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요.

여기서 잠깐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우리는 아프면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건강 검진을 받아요. 우리 삶과 함께 숨 쉬는 자연도 건강해지려면 나무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해요. 나무병원의 전문 진료와 치료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국 나무의 건강은 나와 내 가족, 삶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전문 수목진료 기관은?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체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여기서 잠깐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살포 등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나무의사 처방제란?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



나무의사는 직접 수목피해 현장 방문



진료사항 진료부에 기록



농약사용시 처방전 의무 발급

여기서 잠깐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궁금해요 Q&A

Q 수목 진료가 무엇인가요?



A 나무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 처방, 치료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농작물 제외)

Q 아파트 단지 나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만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Q 조경회사나 실내소독업체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A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없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 나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우리지역 나무병원 어디에 있나요?



A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s://ftims.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